

작품 내용

제 목	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
내 용	인쇄소에서 돌아온 포스터를 벽에 붙이려다 멈췄다 오른쪽 아래 먼지처럼 작은 이름 하나 누군가는 그 이름을 남기려고 밤마다 선을 지우고 다시 그었을 것이다 버려진 초안들 사이에서 끝내 한 장을 골랐을 것이다 나는 못을 조금 위에 박았다 액자가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그날부터 노래가 끝난 뒤에도 화면을 바로 끄지 않는다 책의 마지막 장도 한 번 더 넘겨 본다 작품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람은 늘 늦게 보이므로 나는 아름답다는 말보다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를 찾는다